

번호: PO-EM-019				
제 목	황사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증상 및 행동변화 비교 Study on symptoms and behavior change before and after the Asian Dust events between Korea and China			
저 자 및 소 속	하은희1), 이보은2), 서주희1), 김병미1), 박혜숙1), 김옥진5), 권호장3), 황승식4), 홍윤철4) 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3)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Eun-Hee Hal), Bo-Eun Lee2), Ju-Hee Seo1), Byung-Mi Kim1), Hye-Sook Park1), Ok-jin Kim5), Ho-Jang Kwon3), Seong-Sik Wang4), Yun-Chul Hong4) 1)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2)Division of Chronic Disease Surveillanc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3)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4)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5)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Biostatistics,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환경의학 [환경역학]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b>목적:</b> 전 세계적으로 황사에 대한 관심과 이로 인한 건강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황사와 건강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부족하며 황사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과의 공동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어린이, 성인, 노인집단에서 황사 발생과 관련하여 건강영향 및 건강예방활동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p> <p><b>방법:</b>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어린이,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황사 전과 후에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황사 전 조사는 2005년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황사 후 조사는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황사 전 조사에 참여했던 경우에만 자료로 이용하였다. 중국지역 조사는 중국 길림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황사 전 조사는 2005년 3월 14일부터 26일까지, 황사 후 조사는 4월23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항목은 주로 황사기간 전후의 질병증상과 행동변화에 대한 것이었으며 황사 전 조사는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황사 후 조사는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와 전화설문을 병행하였다. 한국과 중국에서 어린이, 성인, 노인 각 그룹에서 황사 전후의 질병증상을 비교하고, 예방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황사 전에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 황사 후에 증상이 나타난 비율을 살펴보았다.</p> <p><b>결과:</b> 노인 집단은 한국에서는 황사 전에 증상이 없다가 황사 후에 22명이 감기 증상을 보여 증상 호소율은 22.5%이고 중국에서는 7명이 황사 후에 감기 증상을 보여 증상 호소율은 4.8%로 나타남으로써 중국보다 한국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침과 천식증상, 목의 통증, 열에 대한 호소율은 한국의 노인 집단이 중국의 노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인 집단에서는 눈의 충혈 호소율이 한국보다 중국에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 집단에서는 공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호소율이 중국이 11%, 한국이 18.1%로 중국보다 한국에서 높게 나타났고 눈의 충혈 호소율도 중국보다 한국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황사전후의 예방행동 실행비율을 살펴보았더니 노인군에서는 황사전 예방활동으로는 마스크 착용, 긴소매 옷입기 비율이 한국에서 높았고, 외출삼가와 선글라스 착용, 외출 후 눈씻기 비율은 중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 후 예방행동은 야외활동 삼가, 외출삼가, 렌즈대신 안경착용, 외출 후 눈 씻기 모두 중국에서 높은 실행 비율을 나타냈다. 성인의 경우에는 창문 닫기와 야외활동 삼가기, 긴소매 옷입기 등 전반적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황사 예방 행동을 많이 하였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가습기를 이용하는 황사 예방 행동을 한국이 중국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b>결론:</b> 본 연구에서 황사 후의 증상 호소율은 노인과 어린이 집단에서는 중국보다 한국에서 높게 나타났고 성인 집단에서는 한국보다 중국에서 높게 나타났다. 황사전후의 예방행동 실행비율은 한국의 노인 집단보다는 중국의 노인 집단이 황사 예방 행동을 훨씬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황사 예방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황사 예방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증상 호소율과 예방 행동의 차이는 황사의 영향을 받는 지역적 차이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p> <p>※ 본 연구는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Eco-technopia, 2004, 09001-0015-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p>				